

뿌리산업 9만개로 확대·지원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범위 확대
신성장 기반자금 대출규모 늘리고
226억 산학협력 R&D지원 신설

정부가 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인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범 정부적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기존에는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삼았으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드 등 6개로 늘렸다. 부품과 장비를 만들 때 쓰이는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기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로 확대했다.

뿌리기술 범위를 전면 개편한 건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개편 내용을 반영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올해 중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뿌리산업 범위가 넓어지면 뿌리 기업 대상도 기존 3만개에서 약 9만개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뿌리기업의 전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가까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산액 70%는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더욱이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해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이 크다. 또 해외 이전이나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성이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지원을 위해 현재 1000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늘리고, 뿌리기업의 현장으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 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지원을 226억 규모로 신설한다.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 대책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인력난을 겪는 용접 분야에서 3년간 8000여명의 용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폐수처리 등 환경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표면처리업종을 위해서 공동폐수시설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소재 4개 분야는 실증지원을 늘리고, 로봇 등 하이테크형 뿌리기술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지원을 집중기로 했다.

뿌리산업의 공급 안정을 위해 '밀크런(Milk Run)'을 도입한다. 밀크런은 업체가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유 회사가 축산 농가를 돌면서 우유를 거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뿌리 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 품목과 수입국, 제3자 물류 기관 등 사전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소부장의 대응 역량 확대에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소·부·장 기술자립에 총력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

과기정통부, 지정안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네패스 청주2 캠퍼스 회의실에서 '제5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연구인프라(3N) 2단계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연구인프라(3N) 2단계 지정(안)은 과기정통부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 조치로, 기술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지원을 위해 13개 국가연구실, 5개 국가연구시설 및 15개 국가연구협의체를 2단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단계 지정으로 1단계 지정된 12개 국가연구실 및 6개 국가연구시설과 함께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과 관련,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산업현장

과 잘 연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부장 기술특위는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전문기업 네패스를 방문해 한 시간 가량 생산시설을 참관하고 기업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위 위원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연 협업 노후 및 효과적인 산업현장 지원을 위한 현장의견 등을 공유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부장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효과적인 산업현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연합뉴스

이낙연, 7일 당대표 출마 선언할 듯

여의도사무실에 전당대회캠프 꾸려
김부겸 전 의원도 9일 출마선언 예정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도전 주자들이 8·29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나섰다.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주자들이 시작부터 경쟁하는 모습이다. 당권 레이스 경쟁에 불을 지핀 곳은 이낙연 의원이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께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출마에 앞서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30평대 사무실을 마련해 전당대회 캠프로 꾸렸다.

그는 당대표 도전에 임하는 자세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밝힌 출마 메시지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쪽해왔다. 또 하나는 조유의 거대 여당을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외면에선 안 된다"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2년 임기 완주할 것"이라며 "김부겸 캠프는 원래 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있었으나, 이낙연 의원이 7일 출마 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낙연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출마 선언일을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일을 연기한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당내 선거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캠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하고,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 측은 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점도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韓 과실류 未聯서 인기 농식품부, 수출 6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산 사과와 배 등 과실류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증가해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신선농산물의 수출활로 모색을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과실류 빅 바이어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사과, 배 등 과실류 수출이 60%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과실류는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60.8% 상승한 100만 달러이며, 특히 한국산 배는 전년 대비 5배, 사과는 4.5배, 포도는 2.5배 이상 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산 과일의 말레이시아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aT는 올해 5월부터 말레이시아 현지 최대 신선과실류 수입업체인 CHOPTONGGUAN(대표 코에이)과 공동으로 한국산 과실류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라자다와 배달앱 그랩푸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한 결과, 한국산 배와 사과, 포도, 참외 등이 현지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용수 기자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4.4% 증가

라면·김치·쌀 등 수출증가 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과 김치, 쌀가공식품 등이 수출증가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36억784만불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증가 품목은 라면(302.1백만불, 37.4% ↑), 김치(74.7, 44.3%), 쌀가공식품(61.5, 20.8%), 고추장(23.7, 27.3%) 등이다.

신선농산물 수출액의 경우 채소류와 버섯류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김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2% 증가한 6억4720만불을 기록했다. 채소류는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 파프리카·딸기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금액이 감소했다.

김치는 미국에서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유자는 유아생강차 신제품이 미국 대형 할인매장에 입점해 대대국 수출이 93.8% 증가, 전체적으로 23.2% 증가한 2100만불을 기

록했다.

다만, 인삼류는 중국·일본에서 스틱형 제품 인기 등으로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지만, 대만·홍콩은 뿌리삼 바이어 입국 애로 등으로 수출액이 감소해 전체 수출액이 소폭 줄었다.

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9억6064만불을 기록했다.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라면·쌀가공식품·과자류·소스류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다만, 외식업 침체 영향으로 식당에서 주로 소비되는 맥주, 소주, 음료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연초 부진했던 중국 수출이 회복됐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대 농식품 수출대상국인 일본은 라면과 김치 수출 증가에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체 소비가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김중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유통 여건 악화 속에서도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민간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성과 창출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비대면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